



30일 신혜원 변호사가 정재원씨 강제징용 케이스와 관련, LA민사지법이 판결한 일본기업의 피해보상 소송 2차 기각요청 거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우철 기자>

“국제단체 연대 보상네트워크 구성”

‘징용소송’ 정재원씨 관련 변호인단 회견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행된 일본의 만행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국제보상 네트워크(ICR)이 구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 13개국 50개 단체 가입 자료수집·피해자 찾기 활동

이같은 사실은 30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인 정재원(79)씨 케이스에 대한 2차 기각요청이 거부된 것과 관련, 정씨측 변호인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국제보상 네트워크= ‘2차대전 아·태 피해자 보상 시

민연합’(CFR)에 따르면 일본 내 진보적 학자 및 비정부기관, 시민운동 단체들을 비롯해 전세계 13개국 50개 단체가 ICR에 가입해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한국), 여성구출재단(WRF·대만), 아시아 여성 인권문제협의회(필리핀), 국제 중국인위안부 대책협의회(중국) 등과 미국 및 네덜란드의 인권단체가 연대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북한도 지난 93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위한 단체(COCOPA)를 설립하고 CFR측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yha@joongangusa.com>

JoongAng USA

Los Angeles

CAR AI



USA Home Los Angeles New York Washington D.C

전체기사

영문wind

Main Page

Search :

오피니언

칼럼
시설

종합사회

한인사회
지역사회
OC/SD/ELA

경제

한인경제
미국경제
새터너·기업
부동산

미국소식

내셔널화제
이민

스포츠

야구
골프
농구
풋볼

라이프

종교
문화
레저·유티더
건강
교육
기정·이성
미국라이프
영화
인물·동적

LA > 종합사회 > 종합사회

['징용소송' 정재원씨 관련 변호인단 회견]"국제단체 연대 보상네트워크 구성"

장연희 기자



▶ 30일 신혜원 변호사가 정재원씨 강제징용 케이스와 관련, [A민사지법이 편결한 일본기업의 피해보상 소송 2차 기각요청 거부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양우철 기자

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행된 일본의 만행을 규명하고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국제보상 네트워크(ICR)이 구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30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인 정재원(79)씨 케이스에 대한 2차 기각요청이 거부된 것과 관련, 정씨측 변호인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국제보상 네트워크= '2차대전 아·태 피해자 보상 시민연합'(CFR)에 따르면 일본내 진보적 학자 및 비정부기관, 시민운동 단체들을 비롯해 전세계 13개국 50개 단체가 ICR에 가입해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한국), 여성구출재단(WRF-대만), 아시아여성 인권문제협의회(필리핀), 국제 중국인위안부 대책협의회(중국) 등과 미국 및 네덜란드의 인권단체가 연대활동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북한도 지난 93년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를 위한 단체(COCOPA)를 설립하고

- Su
- Ac
- 시
- 영
- 퍼
- 기
- Ph
- 하
- Jlr
- 글

CFR국과 영조를 표류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에 2차대전 당시 일본정부와 기업이 저지른 행위를 폭로하는 한편 일본정부를 상대로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CFR 코디네이터 아리미수 겐씨는 "각 단체가 연대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하는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 자료수집 및 피해자 찾기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국·대만 등 일제 시대 피해자들이 보상과 사죄를 요구하며 일본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67건. 이 가운데 33건은 한국인 피해자와 관련된 소송이다.

◇강제징용 소송 진척 상황= LA민사지법이 29일 일본계 기업 오노다 시멘트사가 제기한 징용피해소송 기각요청을 2번째로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재원씨 변호인단은 유대계와 아시아계를 차별하려는 미정부의 이중적인 입장을 거부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신혜원 변호사는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희생자에 대한 소송을 유대계와 함께 추진했던 미정부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에 대해선 소송기각 요청에 동의하는 행위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인력시간 :2001. 11. 30 21: 33

▲ 맨 위로



25만중 책의 숲 최고 40% 세일 AladdinUS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인터넷 광고문의 | 제휴문의 | Contact Us

© 2001 joongang USA All rights reserved.